

원효의 『미타증성계』와 『징성가』는 같은 작품인가?

김호성*

I. 머리말

II. 선행 연구의 주장 비판

1. 선행 연구의 주장

2. 비판

III. 다른 작품으로 보는 사상적 이유

IV. 맺음말

www.kci.go.kr

요약문

원효의 정토시 2편이 현재 전해오고 있다. 『미타증성계』와 『징성가』이다. 전자는 보조지눌의 저서 『절요』 속에 인용되어 있으며, 후자는 원묘요세의 비문에 인용되어 있다. 동일 저자의 작품에다가, 주제 역시 정토왕생을 노래하고 있기에 이 두 작품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김상현은 동일한 작품으로 보면서, 『징성가』까지 『미타증성계』로 부르고 말았다. 동일한 텍스트의 전반에 『미타증성계』 부분이 있었고 후반에 『징성가』 부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추측하였다. 아마도 그것은 극락정토의 모습을 찬탄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반하여 한태식(보광)은 두 작품이 별개의 작품이라 주장하였다. 그 논거로는 원묘요세가 임종 전에 외고 있었다는 점에서, 『징성가』는 임종 때 하는 염불을 위하여 저술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활용의 한 사례를 가지고, 시간을 소급해서 저술의 목적인 것처럼 보았다는 점에서 오류인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두 작품이 다른 텍스트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그 이유는 두 작품이 그 성격과 사상적 배경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미타증성계』는 『무량수경』에 근거하여 아미타불의 성불과 제도중생을 찬탄하는 노래임에 반하여, 『징성가』는 『관무량수경』에 근거하여 ‘나무아미타불’의 칭명염불이 아미타불의 본원에 따르는 행법임을 중생들에게 권유하는 내용으로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

원효, 미타증성계, 징성가, 김상현, 한태식(보광)

I. 머리말

현재 원효(元曉, 617-686)의 정토관계 저술 중에 두 편의 시가 있다. 『미타증성계(彌陀證性偈)』와 『징성가(澄性歌)』가 그것이다. 『미타증성계』는 보조지눌(1158-1210)의 『법집별행록절요법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이하, 『절요』로 약칭함)에 인용됨으로써 전해졌고, 『징성가』는 최자(崔滋, 1188-1260)가 찬술한 『만덕산백련사원묘국사비명병서(萬德山白蓮社圓妙國師碑銘并書)』(이하, 『원묘요세비명』으로 약칭함)에 인용됨으로써 전해질 수 있었다.

우선,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서도 두 작품을 전하고 있는 사료를 제시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A 曉公法師，亦有彌陀證性偈，深明往古諸佛，先悟後修之門，而今盛行于世。如云：乃往過去久遠世，有一高士號法藏，初發無上菩提心，出俗入道破諸相。雖知一心無二相，而愍群生沒苦海，起六八大超誓願，具修淨業離諸穢。¹⁾

B 又唱元曉澄性歌云：法界身相難思議，寂然無爲無不爲，至以順彼

1) 한불전 4, 753a. ; 보조사상연구원(1989), 133. 한국불교전서는 이를 뽑아내어서 원효 저술 모음집인 제1권에 따로이 편집하였다. 한불전 1, p.843a. 이는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효공법사에게는 또한 『미타증성계』가 있어서 저 옛날의 모든 부처님들이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았던 수행법을 깊이 밝히고 있으니 지금도 세상에서 성행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 옛날 과거의 구원겁 이전 세상에 / 법장이라 이름하는 한 보살이 있었으니 / 처음 위없이 높은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키자마자 / (곧바로) 세속을 벗어나 도에 들어서 모든 고정된 견해를 깨뜨렸네 // 비록 한 마음에는 두 가지 대립이 없는 줄 알았으나 / 고행에 빠져있는 듯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 마흔 여덟가지 (시간을) 초월하는 서원을 일으켜서 /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한 업을 닦아서 더러움을 떠나게 하시네//”

佛身心, 故必不獲已生彼國.²⁾

비록 짧은 시이지만, 원효의 정토사상 내지 정토신앙을 아는 데 결코 간과할 수는 없는 자료들이다. 산문의 주석서보다 시라는 장르가 시인의 사상을 여타의 자료와 뒤섞지 아니하고,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원효의’ 정토사상을 살펴볼 때 마땅히 중시될 필요가 있는 작품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종래 이 작품들에 대해서 이루어진 연구는 그다지 많다고 할 수 없다.³⁾

국문학계에서는 김승찬이, 역사학계에서는 김상현이, 그리고 불교학계에서는 한태식(보광)과 김호성이 논문을 발표하였을 뿐이다. 이들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몇 가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 눈에 띄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이들 두 작품을 동일한 작품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작품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점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다. 김승찬과 김상현은 동일한 작품으로 보고 있으며, 한태식(보광)은 다른 작품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견해를 자세히 검토한 뒤, 다른 작품일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보는 나 자신의 논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의 주장 비판

-
- 2) 『동문선』 제117권. p.16. 이를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효의 『징성가』에서 말하기를, (아미타불의) 헤아릴 수 없는 법계신(法界身)의 모습은 / 고요하여 함이 없지만 하지 않음이 없네 / 지극히 저 부처님의 몸과 마음에 따른다면 / 반드시 저 나라에 태어나지 않음이 없으리 //” 4구의 ‘故’는 연자(衍字)로 생각되므로 번역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 3) 현재까지 원효의 정토사상에 대한 유일의 단행본인 藤 能成(2001)에도 이 두 시는 고찰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1. 선행 연구의 주장

김승찬과 김상현은 『미타증성계』와 『징성가』가 같은 작품이라고 본다. 김상현이 그렇게 보는 이유를 보다 자세히 제시하고 있으므로, 주로 김상현의 의견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눌이 인용한 『미타증성계』와 요세가 창념했던 『징성가』는 모두 원효의 동일한 계송이었을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앞에 인용한 이들 A, B 두 사료에는 몇 가지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두 사료에 제목을 달리 쓴 점, 또 이들 계송을 연결하려 할 때 선후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⁴⁾

엄밀한 고증을 위주로 하는 역사학의 방법론에 익숙했던 김상현일 터인데, 이들 두 작품이 “모두 원효의 동일한 계송이었을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근거는 그다지 풍성한 것 같지 않다. 두 가지 점, 즉 제목과 선후의 연결문제 등으로만 판단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우선 제목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김상현은 다음 세 가지 점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미타증성계』가 본디 이름이며, 약칭을 할 때는 ‘미타’가 생략될 수 있다.
- ② ‘계’와 ‘가’가 의미상 같으므로, 전승의 과정에서는 쉽게 달리 불리울 수 있다.
- ③ 증성(證性)이 정확한 표현이고, 징(澄)은 증(證)의 오기(誤記)이다.

이 중에서 특히 ③에 대해서는 김상현 이전에 김승찬⁵⁾에게서 이미 확인되는 관점이다. 김승찬은 “『징성가』는 『미타증성계』의 속가(續歌)라”⁶⁾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속가’의 의미를 ‘연

4) 김상현(2000), 193. 이 논문은 원래 1987년에 발표된 것이다.

5) 김승찬(1979), 34.

작(連作)’으로 볼 수도 있겠다. 연작이라면 주제는 같지만 다른 작품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그런데 김승찬은 또 “澄性은 證性임이 틀림없다”⁷⁾고 하였다. 그렇게 되면 『징성가』는 원래 『미타증성가』였다는 이야기가 되고 만다. 원래 그랬는데, ‘미타’가 생략되고 ‘증성’이 ‘징성’으로, ‘가’가 ‘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는 정히 김상현과 마찬가지로 관점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김승찬의 논문이 시기적으로 이르기 때문에 오히려 김상현이 김승찬을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징’을 ‘증’의 오기라고 보는 김승찬과 김상현의 판단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기로 하고, 김상현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그는 이들 두 계송이 하나의 동일한 작품이라고 할 때, 두 작품을 연결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다고바로 그런 이유로 인하여 다른 작품이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몇 구절이 누락된 것이 아닐까 말한다.

그렇다고 『미타증성계』가 본래 12구로서 완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개 송은 4구가 1송이 된다. 그런데 A(『미타증성계』 부분 - 인용자)의 제8구와 B(『징성가』 부분 - 인용자)의 제1구가 곧바로 연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마도 이 사이에는 몇 구가 빠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乃往過去久遠世’로 되어 있는 A의 제1구는 이 계송의 첫 부분에, 그리고 B의 제4구 ‘故必不獲已生彼國’은 그 내용으로 볼 때, 끝 부분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추측된다.⁸⁾

우선, 이 두 작품이 하나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 선후관계는 『미타증성계』가 앞에 오고 『징성가』가 뒤에 온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 점은 김상현의 지적이 옳다. 『미타증성계』의 첫 구절 ‘乃往過去久遠世’는 아미타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으로 적절하기 때문이고, 『징성가』의 네 번째 구절 ‘故必不獲已生彼

6) 김승찬(1979), 34.

7) 김승찬(1979), 34.

8) 김상현(2000), 195.

國'은 노래의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중간에 빠진 내용이 있을까 하는 점이다. 만약 빠졌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 빠졌다고 볼 수 있을까? 김상현은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있다.

『미타증성계』에서는 극락세계의 장엄에 대한 표현은 없다. 아마도 A의 제8구와 B의 제1구 사이에 여러 구, 적어도 4구 이상은 빠졌을 것이고, 이 부분에서 극락 세계의 장엄을 노래했을 것이다.⁹⁾

그런데 한태식(보광)은 김승찬이나 김상현과 달리 『미타증성계』와 『징성가』가 아예 서로 다른 작품이라고 본다. 한태식(보광)은 다음과 같이 두 시의 같고 다른 점을 말하면서도, 차이점에 방점을 찍어놓고서 본다.

우선, 공통점으로서의 저작자가 원효라는 것, 정도관계의 시라는 것, 고려후기인 13세기경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에 차이점으로서의 제목이 다르다는 것, 지어진 사상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이다.¹⁰⁾

한태식(보광)이 차이점으로 들고 있는 것은 제목과 사상적 배경이다. 이 중 제목만이 김상현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그의 입장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앞의 김상현의 입장 중에서 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의가 없다는 뜻이리라. 하지만 ①과 ③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먼저 ①에 대해서, 즉 제목에 '미타'가 보이지 않는 이유로서 『징성가』는 “특정한 부처의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미타'라고 하는 부처님의 명호가 보이지 않는다.”¹¹⁾ 『미타증성계』에서

9) 김상현(2000), 198-199.

10) 韓泰植(普光)(1994), 271.

11) 韓泰植(普光)(1994), 271.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더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법장’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③의 ‘증성’과 ‘징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김승찬이나 김상현과는 다른 입장을 내보인다. 그 차이가 단순한 오기는 아니라고 본다. “요세의 비명은 금석문이므로 그다지 잘못이 없다”¹²⁾고 전제한 뒤, 자세히 논증해 간다.

전자의 『미타증성계』는 법장비구가 부처가 되는 것이어서, 불성을 증득, 증오하는 의미가 필수이다. 그러나 후자는 ‘징성’이므로 무명번뇌에 오염되어 있는 불성, 본성,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곧 요세는 입종 시에 병으로 몸이 아파서 마음의 산란을 제거하기 위해 이 『징성가』를 3일 동안 창념(唱念)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하게 되고 맑게 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리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입종계를 지어서 서쪽으로 향해 정좌해서 입적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증성’보다 ‘징성’쪽이 더 어울리는 것이다.¹³⁾

김상현이 동일 작품이라 보는 이유가 제목과 선후의 연결문제의 둘이었다. 이 중에 제목에 대해서는 다시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한태식(보광)의 상충되는 이유 제시가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태식(보광)은 김상현이 동일작품의 이유로 제시하는 둘째 문제, 즉 『미타증성계』와 『징성가』가 같은 작품이라면 매끄럽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동일한 작품으로 보는 김상현에게 그것은 문제가 되지만, 다른 작품으로 보는 한태식(보광)의 입장에서는 애당초 문제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 대신, 그는 김상현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한 측면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다른 작품으로 보는 하나의 논거로 삼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위의 인용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임종전의 원묘요세가 그렇게 한 것처럼 『징성가』는 임종을 앞둔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용도(用度)이지, 아미타불이 불성을 밝히는 증득이

12) 한태식(보광)(1994), 272.

13) 한태식(보광)(1994), 271-272.

나 증오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기에 ‘증성’의 의미로 ‘징성’을 이해하지 않는 것이다. ‘증’과 ‘징’을 동일하게 타동사로 보지만, 그 의미를 다르게 본 것이다. 이는 『징성가』가 원묘요세에게 임종의 행의(行儀)를 위한 것으로 활용되었다고 보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2. 비판

선행 연구를 남긴 김승찬·김상현과 달리 필자는 『미타증성계』와 『징성가』는 서로 다른 작품이라고 본다. 그렇게 다른 작품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한태식(보광)과 같지만,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전혀 다르다. 심지어 한태식(보광)이 다른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제목에 대해서이다. 나는 김승찬·김상현의 의견과는 달리 『징성가』는 애당초 『미타징성가』도 아니었고, 『미타증성가』도 아니었다고 본다. 『미타증성계』에서는 ‘미타’가 ‘증성’의 주체이므로 주어로서 ‘미타’가 있어야 한다. 그런 까닭에 『미타증성계』를 『증성계』로 약칭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징성가』에서 주체는 미타가 아니다. 시인이 『징성가』를 노래할 때, 그 노래 안에서의 행위 주체는 제3-4구에서 말하는 바대로 지극한 마음으로 붓다의 신심(身心)을 따르는 중생이고, 반드시 극락에 왕생하기로 되어 있는 중생이기 때문이다. 한태식(보광)은 『징성가』 제목에 ‘미타’가 없는 것에 주목하면서 시의 내용에도 ‘미타’라는 명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¹⁴⁾하였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미타’라는 말이 없어도, 제1구의 ‘법계신’이라는 말이나 제4구의 ‘생피국(生彼國)’이라는 말에서 아미타불과 연계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14) 한태식(보광)(1994), 271. 참조.

없다. 다만, 『미타증성계』가 미타를 주어로 하는 것과 달리 『징성가』는 중생이 주어 - 행위의 주체 - 가 된다는 점에서, 두 시가 다른 것은 분명하다.

다음, 『징성가』의 ‘징성’의 의미를 ‘마음을 밝히다’라는 뜻으로 보는 한대식(보광)의 관점을 검토해 본다. 한대식(보광)은 ‘澄 + 性’의 의미를 ‘동사 + 목적어’로 확정하고 있는데, 그가 다른 작품이라 생각하는 『미타증성계』의 영향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에 더하여, 원묘요세의 『징성가』 창념(唱念)이라는 『징성가』 독송의 한 사례를 갖고서 시의 의미를 확정짓는 데 활용한다. 시간적으로 시인의 창작시점에까지 소급해서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볼 근거는 없다. 왜냐하면 『징성가』 제3-4 구에서 드러나 있는 행법은 ‘마음을 밝히는’ 것과 같은 선적(禪的) 의미의 수행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그러한 의미의 자력(自力)적 ‘마음 밝히기’라면 아미타불의 ‘저 나라에 태어나는’ 타력(他力)신앙과는 맥락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징성가』는 원묘요세가 임종 전에 외웠다고 하는 것처럼, 그 내용 안에는 임종을 앞두고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되새겨 봄으로써 스스로를 아미타불에게 맡기려는 타력신앙의 모습이 보일 뿐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밝히는 것’은 자력이고, 『징성가』 제3구에서 “(아미타)불의 몸과 마음에 따르겠다(隨順)”는 것은 타력으로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징’을 ‘성’을 목적어로 갖는 타동사로 보는 관점을 틀린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징성’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나는 ‘징 + 성’의 통사론적 구조를 ‘형용사 + 명사’라고 본다. 그렇게 해야 “생각으로 헤아리기 어렵고 / 고요하다”고 한 제1-2구의 표현과 상응하기 때문이다.

둘째, 『미타증성계』와 『징성가』의 선후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 김상현은 『미타증성계』가 앞서 위치하고 『징성가』가 뒤에 이어져 있었을 것으로 본다. 만약 연결해야 한다면, 그러한 순서로 될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김상현은 『미타증성계』의 마지막 구절과 『징성가』의 첫 구절 사이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극락세계의 장엄을 노래했을 것으로 보았다.

우선 지적할 것은, 그렇게 연결 지으려 할 때 매끄럽지 못한 부분 - 김상현이 말한 바 ‘선후의 문제’¹⁵⁾ - 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들 두 작품이 하나로 연결된 동일한 작품이라는 추정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바로 그 점이 서로 다른 독립된 작품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김상현은 이러한 방향의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과연 이들 두 작품이 동일한 하나의 작품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나는 『미타증성계』와 『징성가』에 대한 구조를 다음과 같이 분석¹⁶⁾해 보았다. 먼저 『미타증성계』이다.

乃往過去久遠世	└	주인공 소개	┌
有一高土號法藏	┌		└
初發無上菩提心	└	정각	-----┌
出俗入道破諸相	┌		└
雖知一心無二相	-	정각	-----┌
而愍群生沒苦海	└		└
起六八大超誓願	┌	제도중생	┌
具修淨業離諸穢	┌		

정토사상에서 두 가지 회향은 담란(曇鸞)에 의하여 제시되었는데, 왕상회향(往相廻向)은 중생이 아미타불 국토에 태어나서 성불하는 것을 말하고, 환상회향(還相廻向)은 다시 중생의 세계로 돌아와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말한다.¹⁷⁾ 이러한 회향사상을 아미타불에 적용해 본다면, 범장보살이 아미타불로 성불한 것은 왕상회향이라 할 수 있고 아미타불이 중생을 교화하는 것은 환상회향이

15) 김상현(2000), 193. 참조.

16) 김호성(2016), 8.

17) 담란, 『무량수경우파계사원생계주』. 대정장 40, 836a. 참조. ; 신란(親鸞), 『교행신증』 제1권. 대정장 83, 589b.

라 말해서 좋을 것이다. 결국 『미타증성계』는 부처가 되어서 중생 제도를 해주시는 아미타불, 즉 두 가지 회향을 원만하게 실천하신 아미타불에 대한 찬탄이다.

한편, 『징성가』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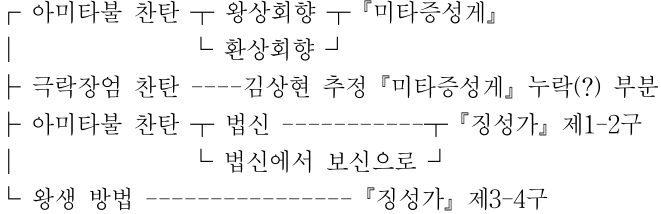
法界身相難思議 - 법신(=法性法身) - (법신의 증입) —————┐ 아미타불
 寂然無爲無不爲 - 법신(=법성법신)에서 보신(=方便法身)으로¹⁸⁾┘
 至以順彼佛身心 - 아미타불의 부름에 응답(隨順)함 —————┐ 중생
 故必不獲已生彼國 - 그 결과 왕생극락이 가능함 —————┘

제3구에서 ‘법신의 증입’을 () 속에 넣은 것은 문면(文面)에 나타나지 않으나, 그 행간에는 숨어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난사의한 법계신은 적연하기도 하고 무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것을 체(體)로 볼 수도 있고, 그로부터 다시 하지 않음이 없다는 무불위(無不爲)로 나오는 것은 작용(用)의 측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구와 제3구 사이의 행간에는 아미타불이 중생구제를 위해서 세운 사십팔원의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무량수경』에 나오는 것이고, 원효는 이미 그것을 『미타증성계』를 통해서 노래한 바 있다. 지금은 그러한 맥락, 즉 아미타불의 찬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3-4구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그 서원에 중생들이 응답함으로써 왕생극락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강조하는 맥락인 것이다.

『미타증성계』가 온전히 ‘아미타불에 대한 찬탄’이라면 『징성가』의 경우에는 아미타불 찬탄만이 아니라 우리 중생 쪽에서는 아미타불의 중생제도, 즉 환상회향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시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바로 제3-4구에서이다. 바로 이 점에서 『징성가』는 『미타증성계』와는 다른 구조를 갖는 시라고 보게 된다.

18) 법신을 법성법신과 방편법신으로 나누는 것 역시 담란, 『무량수경우파제사원생계주』, 대정장 40, 841b. 참조.

만약 같은 작품이라고 본다면, 작품의 구조가 정연(整然)하지 못하게 된다. 그 어색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도표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어색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두 작품 사이에는, 김상현이 추정하듯이, 극락세계의 장엄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더라도, 그 어색함은 쉽게 풀어지지 않는다. 만약 이들 두 작품이 애당초 같은 작품이었다고 한다면, 『징성가』 제1-2구로 이루어진 ‘아미타불 찬탄’ 부분은 없는 편이 더욱 자연스럽게 생각된다. 『미타증성계』와 ‘아미타불 찬탄’이라는 성격상 중복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김상현의 추정이 잘못되었으며, 이들 작품을 다른 작품으로 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도 그럴 것이, 동일하게 ‘아미타불 찬탄’이라고 하더라도 『미타증성계』가 왕상회향과 환상회향의 구조로 이해됨에 반하여, 그와는 달리 『징성가』는 법신에서 보신이라는 체용의 구조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법신에서 보신으로’의 구조 역시, ‘법신의 증입’을 () 속에 넣고 본다면, 그것을 왕상회향의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보신의 행위를 환상회향으로 보는 것 역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동일한 ‘왕상회향과 환상회향의 구조’를 같은 작품 속에서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시 역시 그 안에는 나름의 정연한 논리를 갖추고 있는 글쓰기 장르라 할 수 있다. 과연 원효가 한 편의 시 속에 혼돈스럽게 그런 중복되고, 복잡한 구조를 집어넣었을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미타증성계』와 『징성가』가 별도의 다른 작품이라 할 때, 그렇더라도 과연 『미타증성계』에는 그 제8구 뒤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까? 나는 없었을 것으로 본다. 현존 『미타증성계』가 애당초의 작품 전체일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 이유는 두가지이다.

첫째, 만약 몇 구절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김상현의 추정대로 극락장엄에 대한 것일 터이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었다. 만약 극락장엄에 대한 부분이 몇 구절 더 있었다고 한다면, 『미타증성계』라는 제목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미타불 찬가’가 아니라 ‘무량수경 찬가’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19) ‘미타증성’이라는 말만으로는 극락장엄의 의미까지를 다 포괄할 수 없다. 그랬다면, 원효 스스로 『미타증성계』가 아닌 다른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시인이 시를 짓고 제목을 붙일 때, 시의 내용 범위를 포괄하면서 제목을 짓는 것 아니겠는가. 제목과 내용이 상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인 스스로 용납하지 않는다. 원효 역시 그러한 시 작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둘째, 제8구 ‘구수정업이제예’라는 것이 시의 결구(結句)의 성격을 띄는 구절이라는 점에서이다. 『징성가』의 제3-4구는 왕생극락은 필정(必定)의 사실임을 나타내고 있다. 아미타불의 자비(=본원력)를 향해가는 중생들의 호응이 낳은 결과를 미리 예측한 것, 혹은 확신한 것이라 말해서 좋다. 그런 한편으로 아미타불 찬가라는 성격을 갖는 『미타증성계』는 아미타불이 중생제도를 위해서 환상회향하는 모습을 찬탄하는 것이 결론이기 때문이다. 아미타불은 바로 제8구의 장면을 연출하기 위하여, 극락을 건설하면서 중생들을 초청했던 것 아닌가. 바로 그 ‘초청장’이야말로 제18원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제8구 뒤에 다시 다른 부분이 잇대어진다는 것은 시의 완결성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사족(蛇足)이 되고 말 것이다. 원효는 충분히

19) 『무량수경』을 비롯한 정토삼부경은 공히 아미타불과 극락세계를 다 말하고 있다.

그런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시인’이 아니었을까.

Ⅲ. 다른 작품으로 보는 사상적 이유

이 두 작품을 서로 다른 작품이라 보는 또 다른 이유로 나는 『미타증성계』와 『징성가』의 사상적 배경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앞서 인용한 바 있지만, 한태식(보광)은 이들 두 작품이 “지어진 사상적 배경이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그 사상적 배경을 원묘요세의 경우에 임종 전의 창념이었다는 데 착안하여 ‘징성’의 의미를 ‘마음을 밝히는’ 것으로 보고자 하였다. 그러한 시각은 잘못이라는 점은 앞서 비판한 그대로이다.

한편 김상현은 두 작품이 공히 『무량수경』을 그 배경으로 한다고, 즉 사상적 배경이 같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계송(두 작품 - 인용자)은 『무량수경』을 배경으로 하여 지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정토삼부경의 하나인 『무량수경』은 상권에서 범장보살의 서원과 수행을, 하권에서는 정토왕생을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⁰⁾

『미타증성계』가 『무량수경』 상권을 배경으로 한 것임은 제2구에서 ‘법장’이라는 고유명사가 등장하고, 제7구에서 ‘기육팔대초서원(起六八大超誓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증은 불필요하다. 범장보살이 아미타불로 성불해 가고(왕상회향), 다시 사십팔원을 매개로 해서 제도중생(환상회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징성가』는 분량도 4구 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그 사상적 배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

20) 김상현(2000), 195.

다. 얼핏 생각하면, 『징성가』 3-4구에서 정토왕생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곧 『무량수경』 하권과 연결시키기 쉽다. 김상현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징성가』 제1-2구의 사상적 배경과는 달라지고 만다. 왜냐하면 『징성가』 제1-2구의 사상적 배경은 『무량수경』이 아니라 『관무량수경』이 기 때문이다. 제1구 ‘법계신’이라는 말이 바로 『관무량수경』 제8관에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희에게 말씀하셨다. 이러한 것(華座 - 인용자)을 보고나서는 다음으로 마땅히 (아미타)부처님을 생각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 여래는 법계신인데, 모든 중생의 마음 가운데 들어간다.²¹⁾

제8관의 이름은 상관(像觀)이다. 『관무량수경』에서는 제7관까지 극락국토의 장엄을 관찰하다가, 제8관에 이르러 직접적으로 아미타불을 관찰하라고 말한다. 아미타불은 다른 모든 부처와 마찬가지로 법계신이다. 그렇기에 『징성가』 제1-2구의 서술처럼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 고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무(無)인 것도 아니고, 바위와 같은 무정물(無情物)도 아니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 고요하다”는 것은 곧 체(體)에 대한 형용으로써 무위(無爲)의 모습이지만, 바로 그렇기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無不爲).”²²⁾ 용(用)이 나오는 것이다.

‘법계신’은 담란의 『정토론주』의 용어로는 법신이다. 그런데 담란은 법신을 다시 범성법신(=법신)과 방편법신(=보신)의 둘이 있다고 했다.

21) 佛告阿難及韋提希，見此事已，次當想佛。所以者何，諸佛如來，是法界身，入一切衆生心想中。 대정장 12, p343a.

22) 이 제2구의 해석은 선행연구자들 모두 오역하고 있다.

모든 불보살에게는 두 가지 법신이 있다. 첫째는 법성법신이고 둘째는 방편법신이다. 법성법신으로 말미암아 방편법신이 있고, 방편법신으로 말미암아 법성법신이 나온다. 이 두 법신은 하나로 나눌 수 있고, 하나이지만 같은 것도 아니다.²³⁾

‘난사의=적연=무위’한 법계신은 법성법신을 가리키고, ‘무불위’의 법계신은 방편법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징성가』의 제3구의 의미를 어떤 수행법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제1구의 ‘법계신’이 『관무량수경』의 제8관에서 제시되는 것이므로 곧바로 『징성가』의 제3구 역시 관상염불(觀像念佛)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는다고 본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이다. 첫째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2구의 내용이 달라져야 마땅할 것이다. 관상의 대상이기만 한, 즉 왕상회향적 측면만 있는 부처라면 “하지 않음이 없다”는 역동성, 즉 환상회향적 측면은 말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징성가』는 단순히 『관무량수경』 제8관의 시적 재구성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고, 원효의 시적 형상화에 의한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는 이 『징성가』에서 제도의 대상으로 삼는 중생은 관상염불이 가능한 근기, 즉 상대적으로 볼 때 칭명염불만이 가능한 근기의 중생들보다는 좀 더 높은 근기의 중생들을 위한 가르침의 제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관상염불에서의 아미타불이라면 ‘법계신상난사의’ 그 자체로서 법성법신으로만 머물러 있을 것임에 반하여, 제2구 ‘적연무위무불위’의 아미타불은 방편법신이라 생각된다. 『징성가』 제2구에서는 “하지 않음이 없다”고 말해졌다. 그리고 그러한 역동성은 바로 마흔여덟 가지

23) 諸佛菩薩，有二種法身。一者，法性法身；二者，方便法身。由法性法身，生方便法身；由方便法身，出法性法身。此二法身而不可分一，一而不可同。『무량수경우파제사원생계주』. 대정장 40, 841b.

서원의 실천으로 나타나 있는데, 특히 제18원에서 그 극명한 절정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어 왔다. 정토문에서 제18원을 왕본원(王本願) 혹은 원왕(願王)²⁴⁾으로 불렀던 까닭이다.

이 『무량수경』의 제18원에 나타난 아미타불의 자비는 『관무량수경』에서는 하생하품(下生下品)에서 반복되는 것으로 나는 본다. 양자는 서로 상통하는 것으로 보는데, 함께 읽어보기로 하자.

가령 내가 부처가 될 때, 온누리의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 발원을) 믿고 좋아하여 나의 국토에 태어나고자 해서 십념 정도를 한다고 하자.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국토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으리라.²⁵⁾

선지식이 알려주시기를, 그대가 만약 능히 염할 수 없다면 마땅히 무량수불을 일컬어라. 이와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열 번이 다 되도록 ‘나무아미타불’을 일컬어라.²⁶⁾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에 나타난 아미타불의 본원은 “나무아미타불”의 칭명염불을 한 열 번 정도(내지십념)²⁷⁾라도 하기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아미타불의 본원은 마침내 중생들의 근기를 따라서 이 하생하품에까지 내려오고 또 내려왔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징성가』 제1구에서 『관무량수경』 제8관에 나온

24) 柳宗悅(2017), 115.

25) 設我得佛，十方衆生，至心信樂，欲生我國，乃至十念，若不生者，不取正覺。대정장 12, 268a. 인용문 뒤에 더 있는 “唯除五逆·誹謗正法”은 번역에서 생략하였다. 『관무량수경』의 하생하품과 선명하게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26) 善友告言，汝若能念者，應稱無量壽佛，如是至心，令聲不絕，具足十念，稱南無阿彌陀佛。대정장 12, 346b. ‘염’은 앞의 여러 관에서 제시했던 관상염불의 의미이고, 십념은 선도(善導)의 사상에 비추어서 십성(十聲)의 의미로 해석했다.

27) 『무량수경』 하권에서는 “한번 정도(내지일념)”이라 말한다. 대정장 12, 272b. 참조.

‘법계신’이라는 말이 인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성가』는 제3구에서 관상염불을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제2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때, 『관무량수경』의 하생하품에서 설하는 청명염불을 노래한 것으로 나는 제3구를 이해하고자 한다. 또 그것이 원효의 실계(失戒) 이후의 대중교화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청명염불의 제시²⁸⁾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징성가』를 이렇게 이해해 볼 때, 『징성가』는 『관무량수경』에 입각하여 중생들을 극락왕생으로 인도하려는 마음이 담긴 시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무량수경』에 근거하여 아미타불 찬가로 지어진 『미타증성계』와 동일한 작품의 부분들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두 작품은 애당초 서로 다른 독립된 작품으로 지어졌을 것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일 가능성이 보다 더 높은 것은 아닐까 라고 나는 판단한다.

IV. 맺음말

역사는 사료를 놓고 해석하는 학문인데, 그 사료가 드문 경우에는 해석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료가 없다면 역사라는 학문은 성립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의 재구성을 완벽하게 포기할 수는 없다. 최선을 다해서 사료의 공백을 메꾸려는 노력을 학자들은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역사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

28) 『삼국유사』 원효불기(元曉不羈), 한불전 6, p.348b. 참조. 『무량수경중요』에서도 『관무량수경』 하생하품의 십념(十念)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원효가 충분히 『관무량수경』을 의식(意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불전 1, 559a. 참조.

때 학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해석학적 상상력(hermeneutical imagination)일 것이다.

해석학적 상상력이 개재된다는 점에서 역사는 엄밀한 사회과학이 아니라 인문과학 내지 인문학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해석이 문학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역사와 문학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나라의 언어에서 ‘역사’라는 말과 ‘이야기’라는 말이 동일한 경우를 본다.

역사가 이야기가 되고 문학과의 경계선이 애매모호해 지면서 우리는 주관에 치우치는 해석을 가끔 마주하게 된다. 그럴 때는 또 이래도 좋은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석에서 해석자의 자유로운 해석학적 상상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 있고, 해석은 그만큼 풍요로울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람직하게 생각된다. 정확한 사료에 의해서 뒷받침되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건 내지 사실을 중심으로 한 아우라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역사상(歷史像)’이라 할 수 있다. 역사에 대한 이미지라는 말이다. 이미지 역시 문학에서, 특히 시에서 하는 말이다. 여기서도 역사와 문학이 다시 만나게 됨을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상상력에 무한한 자유를 주어도 좋은가? 최소한의 사료라도 존재한다면 그 사료의 원문에 대한 분석에 일차적으로 최선을 다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사료와 해석 사이에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바로 그때 진정한 역사는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내도록 이러한 방법론적 성찰을 거듭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원효의 『미타증성계』와 『정성가』가 과연 하나의 작품에서 나온 것인지, 그래서 원래 이름은 『미타증성계』였으며, 『정성가』는 그 약칭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선행연구자들의 해석이 작품 그 자체의 분석적 독서를 너무나 가벼이 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시에는 표층의미만이 아니라 심층의미가 있는데, 심층으로 내려가서 그 의미를 끌어올릴 수 있게 하

는 실마리는 사실 시의 문면(文面)에 담겨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작품은 모두 정토사상을 노래한 정토시이고, 모두 다 정토신앙을 설하고 있는 정토삼부경에서 사상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정토시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해석의 판단 자료를 정토삼부경에서 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바로 그를 위해서도 정토삼부경에 대한 정밀한 독서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결국 나는 『미타증성계』는 『무량수경』 상권에 기반하여 아미타불의 성불과 제도중생을 찬탄하는 ‘아미타불 찬가’(미타찬)이며, 『징성가』는 제1구 ‘법계신’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처럼, 『관무량수경』을 기반으로 하여 중생들에게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칭명염불을 행하라는 권유의 시(왕생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사상적 배경과 주제를 갖고 있는 작품을 동일한 작품으로 볼 수는 없음을 논증하였다. 그보다 애당초 서로 다른 작품으로 지어졌으리라 보는 것이 더욱 가능성있는 추론일 것으로 보았다.

짧은 시이지만, 이러한 원효의 정토시는 원효의 정토신앙을 이해함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무량수경종요』, 『불설아미타경소』와 같은 원효 자신의 정토관련 저술은 물론, 일연의 『삼국유사』 원효불기(元曉不羈)와 같은 전기류(傳記類)들과 서로 대응시켜 감으로써 원효의 정토신앙 내지 정토사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무량수경』. 대정신수대장경 12.
- 『관무량수경』. 대정신수대장경 12.
- 『교행신증』(親鸞). 대정신수대장경 83.
-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普照知訥). 한국불교전서 4. 서울 :
동국대학교 출판부.
- 『무량수경우과제사원생계주』(曇鸞). 대정신수대장경 40.
- 『무량수경종요』(元曉). 한국불교전서 1. 서울 : 동국대학교출판부,
『만덕산백련사원묘국사비명병서』(崔滋) ; 서거정, 『동문선』 제117권.
- 『삼국유사』. 한국불교전서 6.
- 김상현(1987), 「원효의 미타증성계」, 『경주사학』 6. 경주 : 동국대
경주사학회.
- 김상현(2000), 「미타증성계와 그 의의」, 『원효연구』. 서울 : 민족사.
- 김승찬(1979), 「원효의 문학세계」, 『논문집』 제18집. 부산 :
부산대학교문리과대학.
- 김호성(2016), 「원효의 『미타증성계』와 보조지눌」, 『불교학연구』
제49호. 서울 : 불교학연구회.
- 藤 能成(2001), 『원효의 정토사상 연구』. 서울 : 민족사.
- 柳宗悅(2017), 『나무아미타불』(김호성 책임번역). 서울 : 모과나무.
- 韓泰植(普光)(1994), 「新羅 · 元曉의彌陀證性偈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43-1號. 東京 : 日本印度學佛敎學會.

Abstract

Are Wonhyo's "A verse on Amita Buddha's Enlightenment" and "A Verse on Amita Buddha's Pure Nature" the same work?

Kim, Ho Sung
Dongguk Univ.

Two poems about Pure Land(淨土)are written by Wonhyo(元曉:617-686): *A Verse on Amita Buddha's Enlightenment*(彌陀證性偈) and *A Verse on Pure Nature*(澄性歌). The former is cited in Jeoryo(節要) of Bojo Chinul(普照知訥:1158-1210), and the latter is cited in the inscription of Wonmyo Yose(了世:1163-1245) by Choi Ja(崔滋).

Kim Sang-hyun(金相鉉:1947-2013) defined *A Verse on Pure Nature* as a part of *A Verse on Amita Buddha's Enlightenment*, treating as the same piece of work. He did not acknowledge the originality of *A Verse on Pure Nature* and assumed that there was a missing content, the commemoration of Pure Land could have been stated in between each poems.

On the other hand, Han Tae-sik(Bo-kwang) argues that *A Verse on Amita Buddha's Enlightenment* and *A Verse on Pure Nature* are each individual works. *A Verse on Pure Nature* was described as a chanting for funeral ritual because Wonmyo Yose chanted it before his own death. However, I pointed out that it is an error relying on single example to interpret the actual purpose of the poem.

I interpreted the two poems have their own originality in the character and philosophical background. *A Verse on*

Amita Buddha's Enlighthenment is a poem praising Amita Buddha's enlightenment and salvation for every sentient beings based on the thoughts of Sukhāvativyūha Sūtra. In the meanwhile, *A Verse on Pure Nature* is a poem praising Amita Buddha's enlightenment and salvation for every sentient beings and persuading them to rebirth in the Pure Land(Sukhāvati) by chanting 'Namo Amitābha' that was instructed in the *Sūtra of Contemplation on the Buddha of Immeasurable Life*.

Key Words :

Wonhyo, *A Verse on Pure Nature*, *A Verse on Amita Buddha's Enlighthenment*, Kim Sang-hyun, Han Tae-sik(Bo-kwang)